

도의회 해외연수 동행업체 용역 계약

D사, 올해 전남도와 6건 38억원 용역 계약 체결...W사는 9900만원

전남도 퇴직 공무원 근무해 논란 가중...“누가봐도 적절치 않아”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에 업체 직원들과 동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울릉도 전남도와 수십억원대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에는 전남도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날

22~30일 전남도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등 7명이 호주, 뉴질랜드, 피지로 해외연수를 떠났는데 동행했던 D업체는 올해 6건의 용역 계약을 도와 체결했다.

6건의 용역 중 5건은 전남도가 지명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명경쟁 입찰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신전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14억7000여만원, 남상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 용역 11억8000여만원 등 총 38억원의 용역을 낙찰받았다.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공사(2단계) 1공구 책임감리용역(8차)은 제안경쟁입찰방식으로 2100여만원 상

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도 D사는 전남도와 27억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W업체 역시 올해 3건, 1억원에 가까운 용역계약을 전남도와 체결했다.

지방도 842호선 영랑 홍농교 등 3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4200여만원, 지방도 817호선 장흥 용문교 등 2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3100여만원, 지방도 861호선 구례 남도대교 등 3개소 정밀점검 용역 2500여만원 등이다.

지자체도 2억여원의 용역 계약이 있었다.

더욱이 관급공사 용역을 주로 하는 이들 업체에 퇴직한 전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갖가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한 참가자는

“오세아나아 국가들의 지연형 하천 조성 과정을 벤치마킹 한다는 취지에서 하천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했다”고 밝혔지만, 전남도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입장에선 도와 도정을 견제, 감시해야 할 도의원들이 ‘갑’ 일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수그러들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 후 보고서에 업체 직원 2명의 명단이 올라 있지 않은 것도 ‘부적절한 관계’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남도와 수십억원대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도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은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수과정에 무수인이 있었는지를 낱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선의의 다른 의원들의 피해를 감안해 연수 기간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심 식물터널에서 더위 피하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민주광장에 들어선 도심 정원이 시민들에게 무더위를 피하는 쉼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5·18민주광장 시계탑부터 중앙대 사이에 설치된 식물터널은 알록달록한 조롱박과 수세미, 여주 등 농산물 식물과 초화류까지 30종 4000본이 어우러져 총 40m 길이의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 ‘올해 임금협상’ 무분규 타결

현대삼호중공업 노사가 국내 대형 조선업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2017년 임금협상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또 ‘수주 절벽’으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2주간 여름휴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조합원 총회를 갖고 ‘노사간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57.8%(찬성 1142명)로 최종 가결했다.

이 날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410명 중 1984명(82.2%)이 참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최근 가진 제16차 교섭에서 기본급 동결,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노사화합 격려금 100만원 지급, 경영위기 극복 격려 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을 합의했다.

또 올 하계 휴가를 예년 보다 1주일이 늘어난 2주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염암=강원훈 기자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완전 선택제 도입 참여율 저조...‘사교육 확대’ 우려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완전 선택제를 도입한 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방과후학교 완전 선택제 도입 후 일반고등학교 전체 참여율은 3월 80.28%에서 6월 75.13%로 감소했다.

지난해 1학기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90.84%에 달했으나 올해 6월 현재 75.13%로 15.71%가 줄었다.

사립보다 국·공립의 참여율이 더 낮았다. 국·공립은 지난해 1학기 88.45%에서 올해 3월 76.44%, 6월 71.38%로 감소했으며, 사립은 지난해 1학기 93.22%에서 올해 3월 84.21%, 6월 78.91%로 줄었다.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일수록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현재 3학년은 66.01%, 2학년은 69.9%, 1학년은 79.19%를 기록했다.

대학입사가 다가올수록 방과후학교보다는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사례가 더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조인호 기자

동구,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 눈길

최근 광주지역에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동구가 교통섬과 교차로 횡단보도 등에 무더위쉼터 그늘막을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로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동구청 앞 오거리, 충장로1가 입구 사거리, 조선대학교 정문, 남광주교가 사거리, 중앙초교 사거리, 학동 전대병원 앞 등 6개소에 무더위쉼터 그늘막을 설치했다.

설치된 그늘막은 보행자들이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재난관리팀과 각 동주민센터에서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그늘막 상태를 점검하고 강한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는 날은 그늘막을 접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서구,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대책 추진

광주 서구는 오는 8월 말까지 연휴 체육관 및 상무 시민공원 주변 일대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관리에 나선다.

하계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의 음식 값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

의식비 및 숙박료, 농축산물, 피서용품 이용료 등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부당요금 징수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를 위해 서구는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피서지 바가지요금 취약지역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사례 수집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북구, 남도음식 명인과 함께하는 전통음식강좌

광주 북구가 남도의 맛과 남도인의 숨결이 배인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전통음식강좌를 운영한다.

북구는 내달 25일까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운영하는 ‘2017 하반기 전통음식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떡·한과 ▲향토음식 ▲페백·이미지 ▲발효·저장음식 ▲자연주의 음식 등 5개 분야에 대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15주 과정으로 운영되며, 과정별 30명씩 총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떡·한과 과정은 보슬단지, 오색경단, 두담떡 만드는 법에 대해, 향토음식과정은 버섯장조림, 표고강정, 탕채 등 지역 토속음식 만드는 법에 대해 강의한다.

그리고 페백·이미지 과정은 수박오름, 오징어꽃모반, 구절판 등 한류음식에 대해, 발효 및 저장음식 과정은 장아찌,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 심층 위주의 강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사로는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7호 남도의례음식장인 이애실, 민경숙 선생을 비롯해 남도 전통음식의 보존 및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고선자, 김혜옥, 이서연 등이 참여한다.

수강료는 과정별 12만원(재료비 별도)이며,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수급자,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2001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 출산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1인 1과목에 한해 20%의 수강료가 감면된다.

광산구, 2017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토론회

광주 광산구는 지난 26일 2017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토론회를 열었다. 윤기봉 부구청장이 주재한 토론회에는 과태료 체납 비율이 높은 7개 부서장과 담당 팀장이 참가했다.

광산구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현년도 세외수입 부과액 237억 원 중 87.9%인 208억 원을 징수했다. 이 중 현연도 과태료는 50억 원을 부과해 49.4%인 25억 원을 징수했다.

토론회에서는 전체 과태료 체납액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육외 광고를 체납액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광산구는 오는 11월쯤 2차 세외수입 징수대책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행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상속증명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외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 ▶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 ▶ 석면 해체공사
- ▶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 ▶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 ▶ 노동법 기업컨설팅
- ▶ 산재업무대리
- ▶ 급여체계 정비사
- ▶ 징계(해고)자문
- ▶ 4대보험 무료대행
- ▶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